



# 코로나19 대유행 시 간호사의 대구지역 의료자원봉사 경험: 질적 사례연구

하재현<sup>1</sup>, 김기련<sup>2</sup>

<sup>1</sup>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2</sup>마산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A Nurse's Volunteering Experience in Daegu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Qualitative Case Study

Ha, Jae-Hyun<sup>1</sup> · Kim, Ki-Ryeon<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asan University,

<sup>2</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asan University, Changwon,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meaning of a nurse's nursing volunteering experiences in Daegu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ethods:** In this qualitative case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with one nurse regarding her nursing volunteering from December 9 to 20, 2020. The interview lasted about 120 min. The participant was a woman in her early 30s, worked at a general hospital for 7 years, and was a housewife who resigned due to childbirth two years ago and has one child. **Results:** Five theme clusters emerged from the data as follows: 1) Hearing news of a medical disaster 2) Nursing volunteer support decisions 3) Visiting a disaster scene 4) Impression at the scene of disaster 5) Nursing volunteering to be a thinking life. **Conclusion:** Nursing volunteering served as an opportunity to grow further by thinking about the need and value of volunte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 guide for nurses participating in nursing volunteering.

**Key Words:** COVID-19, Disaster medicine, Nurse, Volunteer, Qualitative research

### 서 론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하여 신종감염병 대유행(pandemic)을 선포하였다[1].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으로[2,3]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1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었고,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되었으며, 이후 3월 22일에는 15일 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실시되었다[4].

그러나 이 시기 대구 경북지역은 대구지역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인하여[5] 2월 26일부터 매일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이 시작되었다[6].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 중등호흡기증후군)에 비해 낮은 치사율과 폭발적인 전파력이 특징인[7]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며[8] 확산될 경우 공중보건학의 근거에 따라 효과적으로 방역 조치를 함과 동시에 윤리적 측면을 확보해야 한다[9]. 감염병에 의한 사회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들은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격리와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환자의 강제 격리, 비밀유지, 자원

주요어: 코로나19, 재난의료, 간호사, 봉사, 질적연구

Received Dec 30, 2020 Revised Jan 31, 2021 Accepted Feb 4, 2021

**Corresponding author:** Kim, Ki-Ryeon, Department of Nursing, Masan University, 2640 Hammadaero, Naeseo-eup, Masanhoewon-gu, Changwon 51217, Korea. Tel: +82-51-230-1190, Fax: +82-55-230-1441, E-mail: kkr@masan.ac.kr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http://crins530.jnu.ac.kr>

의 분배, 적절한 치료 및 질 보장 등이다[10,11]. 그러나 문제는 세계보건기구가 2003년 보고한 사스유행 시 감염된 사람의 20% 이상이 병원 종사자였고, 국내의 경우에도 병원 관련 종사자는 39명으로 확진 환자의 21%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간호사가 1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12]. 이러한 감염노출의 위험 상황은 전문직 신념과 사회적 역할 기대 속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인들은 환자 진료 및 간호에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13].

대구광역시에서는 2020년 2월 18일,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래 2월 말부터 3월 초 확진자 수는 매일 수백 명에 달했는데, 특히 2월 29일에는 741명까지 증가하고[14] 종교시설, 요양시설, 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폭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15],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의료인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자원봉사 의료인을 모집하였다[6].

이에 본 연구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지역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구지역으로 의료자원봉사를 자원한 간호사의 생생한 경험을 탐구하고자 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요청에 따라 국방부에서 2020년 2월 초부터 각 항만 및 공항 검역시설 등에 균의료인력 파견과 관련된 연구[5,15], 요양병원 관리자의 코로나19 대응경험[16], 코로나19로 폐쇄된 종합병원 간호사의 경험[17]이 있으며 메르스와 관련하여 메르스 환자간호경험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18] 의료재난지역에 의료자원봉사를 자원한 간호사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가 의료자원봉사를 참여하게 된 계기와 봉사 중 격리와 치료에 집중하면서 겪은 다양한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느낀 보람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여 의료재난 현장에서의 간호사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마련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의료재난 지역 자원봉사 경험은 무엇인지 서술하여 그 경험에 대한 의미의 본질을 기술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시 지역감염이 폭발적으로 증

가한 대구지역에서 의료자원봉사를 한 간호사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그 경험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이해하기 위한 질적 사례연구이다.

### 2. 연구 참여자

질적 사례연구 참여자는 병원을 사직한 상태에서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대구지역에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의료자원봉사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하였다. 참여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종합병원에서 7년간 근무를 하였으며 출산준비와 함께 2년 전 병원을 사직하고 현재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주부로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 3. 연구자 준비

주 연구자는 부울경질적연구학회 일원으로 질적연구 콜로키움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교신 저자는 대한질적연구학회 회원으로 학회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질적연구 역량 함양에 힘쓰고 있다. 또한, 두 연구자 모두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질적연구 방법론을 통한 다수의 연구 결과를 여러 학회지에 게재한 바 있다.

### 4. 자료수집

자료는 심층 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연구에 대한 내용과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모든 내용을 익명처리 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면담은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였다. 면담장소는 칸막이로 구분된 독립된 방으로 된 식당을 이용하여 참여자가 최대한 편안하고 비밀을 보장받겠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벼운 안부 인사부터 시작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의료자원봉사를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요?”, “봉사를 다녀와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등의 개방형 질문으로 의료자원봉사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시간은 첫 면담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의 내용을 정리하여 참여자에게 메일로 전송하여 확인하였으며, 2회의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더 이상 새로운 의미가 담긴 진술문이 나오지 않았을 때 자료수집을 중지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2월 9일

에서 20일까지이었다.

## 5. 자료분석

간호사의 의료자원봉사 경험은 질적 사례분석으로 경험을 충실하게 파악하면서 기술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1단계, 면담 필사본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으면서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얻었다. 2단계, 면담 필사본 중에서 현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문들을 두 연구자가 각자 추출한 다음, 연구자끼리 함께 확인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문을 선정하였다. 3단계, 추출된 문장을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는 단계로 참여자의 언어로부터 좀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의미를 구성하였다. 4단계, 추상적으로 전환한 문장들을 유사성을 고려하여 분류한 진술문들을 같이 읽으며 주제를 조직하였고, 주제를 묶어 주제모음으로 분류하였다. 5단계, 추출된 주제모음들이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 6단계, 도출된 주제와 주제모음을 통하여 간호사의 의료재난발생지역 봉사경험의 의미를 기술하였다.

## 6. 윤리적 고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윤리문제들을 고려하여 면담 전, 연구 목적과 면담 방법, 비밀보장과 익명성, 자발적 연구 참여 및 중단 가능성, 연구 종료 후 수집한 자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할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심층면담 시작 시점에는 면담 내용 녹음에 대해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익명성과 비밀유지 및 연구철회에 대해 한 번 더 설명하였다.

## 7. 연구의 타당성 확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 [19]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신빙성의 충족을 위하여 면담 시 선입견을 배제(Bracketing)하면서 경청하였다. 적용성의 충족을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다른 간호사에게 결과를 보여주어 추출한 개념에 대한 공감여부를 확인하였다. 일관성을 위해 동료 연구자와 같이 분석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였고, 연구 과정동안 친밀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참여자에게 전화와 메일로 분석내

용을 보여주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확증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 초기 문헌고찰로 인한 연구자의 선입견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경향만을 파악하면서 수행하였다.

## 연구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시 의료재난발생지역에서 의료자원봉사를 한 간호사의 봉사경험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21개의 주제와 5개의 주제모음이 도출되었다. 5개의 주제모음은 '의료재난 소식을 접함', '의료자원봉사 지원결심', '재난현장에 뛰어듦', '재난현장에서 느낀 감동', '생각하는 삶이 된 의료자원봉사'이었다(Table 1).

### 1. 의료재난 소식을 접함

첫 번째 주제모음 '의료재난 소식을 접함'은 '대구의 긴급 의료지원 요청', '선한 사마리아인', '납편의 지지', '꼬리를 무는 걱정'의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 1) 대구의 긴급 의료지원 요청

참여자는 의료재난이 발생하여 의료진이 부족한 대구의 상황을 뉴스로 접해서 알고 있었지만, 의료지원에 관한 경상남도간호사회의 문자를 받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가 갑자기 대구에 심해지면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 생겼다고 뉴스를 봤어요. 그 뉴스가 나온 다음날,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경상남도간호사회에서 대구지역의료봉사 지원할 분 모집한다는 문자가.*

#### 2) 선한 사마리아인

참여자는 긴급하게 의료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을 하던 중 아이에게 읽어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책의 내용을 떠올리며 의료재난지역으로 봉사자 신청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다.

*대구의료현장에 긴급 의료봉사자 모집을 한다는 문자를 받고 많이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제 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도와주었거든요.*

**Table 1.** Experience of a Nurse's Medical Volunteer in Daegu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me clusters	Theme
1. Hearing news of a medical disaster	1-1. Emergency medical support request in Daegu 1-2. The good samaritan 1-3. Husband's support 1-4. A lingering worry
2. Medical volunteer supports decision	2-1. Application for medical volunteer 2-2. An urgent request 2-3. A painstaking decision 2-4. Husband's leave of absence and faith
3. Going into a disaster scene	3-1. A feeling of fear over one's head 3-2. Daegu area is more peaceful than I thought. 3-3. A hard-to-adapt protective clothing 3-4. Unestablished disaster scene work 3-5. A hard day's work
4. Impression at the scene of a disaster	4-1. Dedicated volunteers 4-2. New nurses volunteering 4-3. Impression of the people 4-4. Just a grateful family
5. Medical volunteering to be a thinking life	5-1. Contemplation of death 5-2. My precious family 5-3. The meaning of Wounded Volunteering 5-4. Medical volunteering I would like to apply for again

대구 뉴스를 접하자 그게 생각났어요.

### 3) 남편의 지지

의료자원봉사자 모집 문자를 받고 고민을 하던 참여자는 남편과 상의를 하였다. 부부는 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아이에게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고자 결심을 하게 되었으며 이 결정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남편이었다.

퇴근한 남편에게 '나한테 어제 이런 문자가 왔는데...., 혹시 나 대구에 다녀와도 될까?' 했더니, '너만 괜찮으면 다녀와.' '우리 OO(딸)이는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 '음... 나는 그러지 못하지만.... 정의로운 말을 하고 행동하는 일선에 있었으면 좋겠어.' 사실 아이를 그렇게 키우려면 부모인 제가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하는데 실제 제 모습은 그렇지 않아 자신이 없었던 거였어요.

### 4) 꼬리를 무는 걱정

참여자는 남편과 상의 후 의료자원봉사를 가기로 결정을 하였지만, 봉사기간 동안 딸의 육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밤새 계속되었다.

국가에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데 용기 내어 한번 도전해 볼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거의 밤을 꼴딱 새며 생

각했는데.... 남편은 분명 아이를 잘 키워 줄 거야. 분명 내가 이런 일을 하러 간다면 OO(딸)이도 나를 자랑스런 엄마라고 생각할거야.

## 2. 의료자원봉사 지원결심

두 번째 주제모음 '의료자원봉사 지원결심'은 '의료자원봉사 지원신청', '다급한 요청', '힘들게 내린 결정', '남편의 휴직과 믿음'의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 1) 의료자원봉사 지원신청

결심을 한 참여자는 문자를 보내온 경상남도간호사회에 전화를 하였고, 안내 절차에 따라 대한간호협회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의료자원봉사 지원신청을 마치게 되었다.

일단 경남간호사회에 전화를 해보니 제가 켈 처음으로 전화했다면서 넘 감사하다고 했어요. 대한간호협회에 서류신청을 해야 한다고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류접수를 통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2) 다급한 요청

대한간호협회에 서류를 접수한 참여자는 그 날 저녁 바로 대구의료지원 관련부서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는 당장 내일 아침부터 대구로 오라는 긴급한 내용이라 참여자는 너무 갑

작스러운 요청으로 당황스러웠고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랑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대구의료지원 관련부서 인데 내일 아침 10시까지 D의료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내일요?', '내일 당장?', '저 5분만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려도 되나요?'....

**3) 힘들게 내린 결정**

긴급한 요청을 받은 참여자는 혼란에 휩싸였으며, 당장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였다. 두 돌이 채 안 된 아이의 양육 걱정과 또 재난 지역에서의 숙식은 어떻게 해결하나 등.... 여러 가지 새롭게 떠오른 고민들로 혼란스러울 때 믿음직한 남편은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참여자는 힘들게 재결심을 하였다.

'대구에서 내일 아침에 올 수 있냐고 하는데 어찌지?', '아직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두 돌 안 된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아이를 갑자기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그동안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과 친동생에게 OO이(딸) 잘 부탁한다고 했더니 동생들도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일단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한번 가보라고.... 분명 다 사람 사는 곳이라 위협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대구의료지원 담당자에게 '숙식은 제공해주나요?' 했더니 제공된다고 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4) 남편의 휴직과 믿음**

무엇보다 참여자는 본인이 없는 동안 혼자 남게 될 아이의 돌봄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상의 끝에 남편이 한 달간 임시 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아주겠다고 해주어서 남편을 믿고 봉사를 떠날 수 있었다.

아이를 갑자기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 아빠인 남편이 보는 것이 엄마 없는 자리를 잘 채워줄 거 같다는 판단이 서서 (의료지원봉사기간동안) 남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잠시 휴직하고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다른 가족들보다, 정말 우리 가정, 남편과 아이는 잘 살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3. 재난현장에 뛰어듦**

세 번째 주제모음 '재난현장에 뛰어듦'은 '엄습하는 공포

감', '생각보다 평온했던 대구 분위기', '적응하기 어려운 방호복', '정착되지 않은 재난현장의 업무', '고된 하루 일과'의 5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1) 엄습하는 공포감**

버스를 타고 대구로 향하던 참여자는 그동안 뉴스에서 소개된 중국 우한지역의 감염통제 상황을 머리에 그려보며, 대구지역 상황에 대한 온갖 상상을 하며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었다.

가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에서 어떤 지역이 감염되어 그 지역을 폐쇄하고, 생사를 오고가는 사람들의 절규.... 의료진들도 감염되어 죽어나가는 상황.... 가족들은 전쟁과도 같은 상황으로 헤어지며 울고 불고.... 마트나 식당은 모두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우르르.... 중국 우한지역에서 먼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뉴스에서 보도가 된 상황이라.... 제가 대구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 배가 고파 편의점에 가서 간단히 샌드위치를 하나 사서 먹는데 너무나도 무섭고 떨렸습니다.

**2) 생각보다 평온했던 대구 분위기**

참여자는 불안감 속에 대구로 향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우려했던 것과 달리 너무나 평온한 모습이였다. 참여자가 처음 마주한 대구는 의료재난지역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모습 이어서 안도감이 생겼다.

막상 대구에 도착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리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평소와 다르지 않은 편의점, 택시, 그리고 사람들도 마스크만 썼을 뿐이지.... 상상했던 영화나 중국의 뉴스 보도 같은 그 지역을 폐쇄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3) 적응하기 어려운 방호복**

참여자는 대구의료지원 관련부서의 지시대로 D의료원에 도착하였고 Level-D 용품과 구호물품 등을 받고 교육을 받았다. 한번 입으면 땀이 흠뻑 젖는 방호복은 적응하기 어려웠고,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쓰러질 뻔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병원에서 먼저 Level-D 방호복 입는 방법, 그리고 의료지원자가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방호복을 입고 근무했을 때는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머리로 아

프고 어지럽고 오심증상 등등이 있어 쓰러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한번 Level-D 입고 일하고 나오면 온 몸이 땀에 흠뻑 젖고.....

#### 4) 정착되지 않은 재난현장의 업무

참여자가 D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온 다른 의료자원 봉사자들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환자 입원은 계속 되는데 서로의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채 업무를 해야하니 자리를 잡아가는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그곳 선생님들도 코로나 환자를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 계속 신환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포지션이 명확하지 않고 자리를 잡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 5) 고된 하루 일과

참여자는 보통 병원처럼 3교대로 근무하였는데 방호복 때문에 오래 근무하지는 못하였다. 2시간 30분~3시간 정도 일하고 쉬고 다시 근무하는 것이 반복되었고 3~4일 일하고 하루 휴무하는 형태였다. 아무래도 병원별 전산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 비교적 적응하기 쉬운 액팅 업무들을 주로 맡았다.

근무는 3교대였는데, 보통 병동근무에서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산은 바로 배워서 일하기가 힘들니 주로 액팅이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식사 나눠주기, 활력징후 측정, 약물주사, 새로운 환자 오면 신환받기, 퇴원하면 침상정리 후 퇴원 안내하기, 물품 채우기, 약 나눠주기 등이 있었고, 요양 병원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추가로 경구영양, 기저귀 케어, I/O 체크 등.... 일하는 시간은 한 듀터 당 8시간씩 근무하는데 2시간 30분정도~3시간 일하고 밖에 나와서 씻고 밥 먹고 잠깐 쉬 후, 다시 2시간 반~3시간 일한 후 밖에 나와서 씻고 조금 쉬다가 퇴근 하는 식이었습니다. 3-4일 일하고 하루 쉬는 정도였습니다.

### 4. 재난현장에서 느낀 감동

네 번째 주제모음 ‘재난현장에서 느낀 감동’은 ‘헌신적인 봉사자들’, ‘자원봉사에 나선 신규간호사들’, ‘감동을 주는 국민들’, ‘그저 감사한 가족들’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 1) 헌신적인 봉사자들

참여자는 의료자원봉사 현장에서 환자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다양한 의료진들을 만났다. 봉사자들은 기존에 그 병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최대한 힘들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업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집에는 말을 하지 않고 온 봉사자들도 있었다.

제가 만났던 의료진들은 신규, 경력직 골고루 있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간호부장까지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환자를 내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존 선생님들을 최대한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집에 말씀 안하시고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 2) 자원봉사에 나선 신규간호사들

참여자가 만난 많은 자원봉사자 중에는 아직 임상경험이 전혀 없는 신규간호사들도 많았다. 방값이나 식비 하나 없이 대구의 의료지원 요청에 무조건 달려온 신규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자부심 하나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도움이 되겠다고 자원해서 온 분들 중에 병원 경험 없는 신규간호사들도 많았어요. 사실 신규간호사들은 초반에 방값이나 식비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온 간호사들도 많았는데 학교(교수님이)가 이를 알고 백만원 단위의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식으로 한다고 들었고.... 그렇지만 신규간호사들 또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현장의 도우미 간호사로서 일을 해냈습니다. 간호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요.

#### 3) 감동을 주는 국민들

참여자는 의료자원봉사 현장에서 많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고 구호 물품을 보내주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돌봄을 받는 신천지 교인들 대부분은 자신들 때문에 고생한다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희는 의료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의료진들의 힘든 그 노고를 아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한푼 두푼 모아 구호 물품들을 보내주시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신천지 교인 환자들도 대부분 자기들 때문에 고생한다고 너무 미안해하고 했어요.

#### 4) 그저 감사한 가족들

참여자는 부모님들이 걱정할 것 같아 시댁과 친정 부모님에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의료자원봉사를 갔었다. 나중에 다녀온 줄 알고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칭찬도 하고 박수도 쳐주어 가족 모두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시댁과 친정은 많이 걱정하실 거 같아 말씀드리지 않고 갔거든요. 친정은 대구가서 말씀드렸는데... 평소 제가 무엇을 하든 지지해주시던 부모님이셨는데 생각외의 반응으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댁은 대구에 있는 중간에 시아버지 제사가 있었는데 그래도 말씀 못 드리고 대구 다녀와서 말씀드리니 많이 걱정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대구를 다녀오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잘했다 칭찬해주시고 박수쳐주시니 저희 가족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의료지원을 할 수 있게 아이를 잘 돌보고 마음을 써준 남편에게도 너무 감사했고.

### 5. 생각하는 삶이 된 의료자원봉사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모음 '생각하는 삶이 된 의료자원봉사'는 '죽음에 대한 고민', '소중한 나의 가족', '상처받은 자원봉사의 의미', '또 지원하고 싶은 의료자원봉사'의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 1) 죽음에 대한 생각

첫 아이 출산 후 산후출혈이 심해서 출산한 아이를 뒤로 하고 큰 병원 응급실로 혼자 이송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어쩌면 죽음으로 아이와 이별해야 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딸을 생각하였다. 이번 의료재난지역 자원봉사는 참여자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 또 한 번 생각하게 하였다.

저는 출산 후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해서 (큰 병원) 응급실에 가면서 아이와 떨어지는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마음에 마지막 가는 그 시간 직전까지 ○○(딸)에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수유를 하며 죽음까지 생각해본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 대구가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서 눈물이 났던 거 같습니다.

#### 2) 소중한 나의 가족

무엇보다 참여자를 지지해준 남편이었지만 자원봉사 기간 동안 집이 너무 그리웠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말 따뜻한 집 밥 한 끼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 아이와 남편과 만나는 순간,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며 너무나도 감격하여 눈물이 나왔어요. 두 돌이 된 아이를 한 달 만에 안아보는데 그 한 달이 아이에게 꽤나 길었는지... ○○(딸)이가 훌쩍 커버린 거 같아 놀라기도 했습니다.

#### 3) 상처받은 자원봉사의 의미

참여자는 의료자원봉사를 떠나기 전에 숙식이 제공된다는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갔었는데 뉴스에서 의료지원한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고액의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과 다른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기존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자기들은 왜 그런 대우를 못 받고 봉사자들만 우대하는지에 대해 불평을 하는 모습을 접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갔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 사기가 떨어지기도 하였다.

의료지원을 떠나기 전, '먹고 자는 건 제공되나요?' 물어보니 숙식이 된다고 해서 갔어요. 하지만 '의료지원한 사람들 돈을 얼마 받는다.'라는 뉴스를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선생님들과 함께 접하게 되니까... 불공평하다고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불평을 하는 간호사선생님들도 계셨고... 정작 돈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뉴스에 나온 만큼 돈을 주지도 않았고... 가서 있는 동안 방값이며 식사들을 우리 돈으로 먼저 해결을 했고...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갔다가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었고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었어요.

#### 4) 또 지원하고 싶은 의료자원봉사

참여자는 간호사니까 의료자원봉사의 기회가 오는 것이고, 간호사니까 남을 도울 수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을 도와줄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또 지원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다른 간호사들에게도 도전해보라고 전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도 저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또 같 거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말합니다. 집과 같은 환경은 아니더라도 그곳도 다 사람 사는 곳이라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호사라는 면허,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도전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 논 의

코로나19 대유행 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구에서[15] 의료자원봉사를 한 간호사의 의료재난발생지역 봉사경험의 의미를 탐색한 결과 5개의 주제모음으로 참여자의 경험구조를 규명하였다. 첫째 주제모음은 '의료재난 소식을 접함'으로 뉴스를 통해 대구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을 알고 있던 참여자는 의료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나서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격적인 고민을 하였다. 그렇지만 결정 후에도 감염위험에 대한 부담은 벗어날 수 없었는데 병원 구성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간호사는[20] 의료현장에서 사람을 직접 대하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다보니 감염 위험의 부담을 안고 있다[21]. 또한 가늠할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이[22]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여자와 같은 의료자원봉사자들은 많은 고민 끝에 자원봉사 결심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주제모음은 '의료자원봉사 지원결심'으로 의료재난지역에서 봉사를하기로 결심을 한 참여자는 다급하게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오라는 대구의료지원 관련부서의 전화를 받고 당황하였고, 가겠다고는 확답을 바로 주지 못하고 다시 혼란에 빠졌다. 어린이집도 가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 중인 어린 자녀의 돌봄 걱정과 당장 대구로 가면 숙식은 어떻게 되는가 등 온갖 걱정거리로 혼란에 빠졌고 친동생, 아는 지인 그리고 임시휴직을 결정해준 남편에게 딸을 부탁하고 결심을 다시 하였다.

세 번째 주제모음은 '재난현장에 뛰어듦'으로 참여자는 무섭고 떨리는 긴장 속에 의료재난지역인 대구로 향하였다. 코로나19와 유사한 메르스 환자 간호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18] 간호사들은 감염 위험성에 따른 불안과 부담이 커서 힘들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역시 긴장과 두려움 속에 대구로 향하였지만 막상 도착한 대구는 생각보다 평온하게 느껴졌다. D의료원에 도착한 참여자는 업무에 대한 교육과 방호복 등을 지급을 받았으나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였다. 감염병동 간호사들은 감염병 기간 막대한 업무가 집중되면서 체력 고갈 등 신체적 어려움을 경험하는데[23], 간호사의 장시간 보호구 착용의 불편감이 있다는 선행연구[24]와 유사하게 참여자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선행연구[24]에서 개인보호장비 착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었으나, 착용이 간호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초래한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스 발생 시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25]에서도 정보가 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적절한 지원(개인보호장비, 인력) 부족, 과중한 업무 부담 등에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렇게, 재난의료현장은 원래 팀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의료자원봉사자들과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정보부족과 정착되지 않은 업무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번째 주제모음은 '재난현장에서 느낀 감동'이었다. 참여자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고 온 봉사자들은 자신을 응원해준 가족들과 국민들이 보내주는 응원에 감동을 받았고 감사함을 느꼈다. 이는 환자 회복에도 기여하면서 간호사로서 가질 수 있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였고, 진정한 간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 선행연구[17]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모음은 '생각하는 삶이 된 의료자원봉사'로 참여자에게 의료자원봉사는 죽음에 대한 생각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에서 사스 유행 시 병원에 격리되었던 의료진들이 엄격한 격리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해 더 힘들었다는 선행연구[26]를 보더라도 의료진들은 가족과 떨어져 업무를 해야 하는 이중의 애로사항이 있다. 더불어 의료자원봉사자들의 대우에 대한 과장된 뉴스의 보도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원래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의 형평성과 관련된 불만의 소리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재난지역 의료자원봉사자 업무규정마련이나 기존 근무 간호사와의 형평성 있는 보상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메르스 대유행 시 간호사 대상 선행연구[27]에서도 사회적 격려가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적절한 규정마련과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참여자는 기회가 되면 또 의료자원봉사를 지원할 마음이 생긴다고 하였는데, 대만에서 사스 병동에서 일했던 간호사들이 사스에 대한 지식 및 이해가 넓어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불면증, 불안이 감소하였고 심리적으로 적응이 되었다는 연구결과[28]로 미루어 볼 때, 감염병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뒷받침되고 적절한 업무규정과 보상이 강화되면 의료재난 현장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더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의료자원봉사자의 경험을 다루지 못하고 한 참여자의 사례만 다루었기 때문에 전체 의료자원봉사자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간호사가 의료재난지역 자원봉사를 결정할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 알 수 있고, 의료자원봉사 업무는 어떠한지, 그 곳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는지, 봉사현장에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과 감동받는 일 및 삶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성과를 남겼다. 의료기관은 감염병 발생 시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인력 구조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감염병에 대응하는 간호사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으며 근무하는데 대한 처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17].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의료자원봉사업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고, 봉사자들의 경험이 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추후 의료재난지역 의료자원봉사와 관련한 업무 재정비나 법제정 및 보상과 관련한 논의 시에 본 연구가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 코로나19 대유행 시 지역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대구지역에서 의료자원봉사를 한 간호사의 의료재난발생지역 봉사경험을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의료재난 소식을 접함', '의료자원봉사 지원 결심', '재난현장에 뛰어듦', '재난현장에서 느낀 감동' 및 '생각하는 삶이 된 의료자원봉사' 의 다섯 가지 주제모음을 확인하였다.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료재난발생지역 의료자원봉사를 통해 봉사의 필요성과 가치를 생각하고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후속 연구로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자원봉사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보람 등 다양한 경험을 탐색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환자에 대한 간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많은 지역 전담병원 간호사들의 애환이나 현장의 어려움 및 보람 등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끝으로 재난지역 의료지원봉사와 관련하여 업무 재정비나 관련법 및 적절한 보상체계가 제정되기를 바란다.

##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 References

1. Park SH. COVID-19 and responses of Japan as a anxiety-control society: self-restraint and solidarity of a disaster community. *The Korean Association of Asian Studies*. 2020;23(4):23-40.  
<https://doi.org/10.21740/jas.2020.11.23.4.23>
2. Hong TS. Criminal responsibility judgment of the so-called 'super-propagator' under Corona 19. *Legal Theory and Practice Review*. 2020;8(4):51-71.  
<https://doi.org/10.30833/LTPR.2020.11.8.4.51>
3. Lu H, Stratton CW, Tang YW. Outbreak of pneumonia of unknown etiology in Wuhan, China: the mystery and the miracle. *Journal of Medical Virology*. 2020;92(4):401-402.  
<https://doi.org/10.1002/jmv.25678>
4. Koh KW. Physical activity guideline for social distancing during COVID-19.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20;37(1):109-112.  
<https://doi.org/10.14367/kjhep.2020.37.1.109>
5. Lee B. Experience of COVID-19 patients care in infectious diseases specialized hospital in Daegu.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2020;38(2):74-79  
<https://doi.org/10.31148/kjmnr.2020.38.2.74>
6. Kim DH, Min PK. Role of Daegu medical association in the infection control of the COVID-19 outbreak.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20;63(5):298-302.  
<https://doi.org/10.5124/jkma.2020.63.5.298>
7. Petrosillo N, Viceconte G, Ergonul O, Ippolito G, Petersen E. COVID-19, SARS and MERS: are they closely related?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 2020;26(6):729-734.  
<https://doi.org/10.1016/j.cmi.2020.03.026>
8. Kim CM, Lee HJ, Choi JM, Hyun HJ, Jeon KS, Park EO, et al. *Community public health nursing*. 2nd ed. Paju: Soomoomsa; 2019.
9. Bae JM. Establishing public health ethics related to disclose information for controlling epidemics on 2015 MERS epidemics in Korea.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 2015;41(4):15-20.  
<https://doi.org/10.22900/kphr.2015.41.4.002>
10. Gostin LO, Berkman BE. Pandemic influenza: ethics, law and the public's health. *Administrative Law Review*. 2007; 59(1):121-175.
  11. Veenema TG. *Disaster nursing and emergency preparedness for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terrorism and other hazards*. 4th ed. New York: Springer; 2018.
  12. Kim HJ, Park HR. Factors affecting post-traumatic stress of general hospital nurses after the epidemic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nfectio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7;23(2):179-188.  
<https://doi.org/10.4094/chnr.2017.23.2.179>
  13. Devnani M, Gupta AK, Devnani B. Planning and response to the influenza A (H1N1) pandemic: ethics, equity and justice. *Indian Journal of Medical Ethics*. 2011;8(4): 237-240. <https://doi.org/10.20529/IJME.2011.088>
  14. Lee SC. Analyzing early responses to COVID-19: Daegu case.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020; 29(3):1-42.  
<https://doi.org/10.22897/kipajn.2020.29.3.001>
  15. Hwang N. Experience of COVID-19 in armed forces Daegu hospital.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2020;38(2): 68-73. <https://doi.org/10.31148/kjmnr.2020.38.2.68>
  16. Choi K, Lee K. Experience in responding to COVID-19 of nurse manager at a nursing hospital.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20;11(5):1307-1322.  
<https://doi.org/10.22143/HSS21.11.5.94>
  17. Jin D, Lee G. Experiences of nurses at a general hospital in Seoul which is temporarily closed due to COVID-19.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0;26(4):412-422.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4.412>
  18. Kim J. Nurses' experience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patients ca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10):185-196.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185>
  19. Lincoln YS, Guba EG.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85.
  20. Park HS, Ha JH, Lee MH, Lee HJ.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ress coping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4; 21(4):466-474.  
<https://doi.org/10.7739/jkafn.2014.21.4.466>
  21. Kim HR, Choi EY, Park SY, Kim EA. Factors influencing preventive behavior agains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mong medically inclin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20;27(4):428-437.  
<https://doi.org/10.7739/jkafn.2020.27.4.428>
  22. Lee MS. Overcoming the COVID-19 epidemics with communities in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2020;45(1):41-46.  
<https://doi.org/10.5393/JAMCH.2020.45.1.041>
  23. Cha KS, Shin MJ, Lee JY, Chun HK. The role of infection control nurse during emerging infectious disease epidemic - focusing on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Korean Journal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2017;22(1):31-41.  
<https://doi.org/10.14192/kjhaicp.2017.22.1.31>
  24. Kim K, Lee O.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nurses o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response to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6; 23(4):402-410.  
<https://doi.org/10.7739/jkafn.2016.23.4.402>
  25. Shih FJ, Turale S, Lin YS, Gau ML, Kao CC, Yang CY, et al. Surviving a life-threatening crisis: Taiwan's nurse leaders' reflections and difficulties fighting the SARS epidemic.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09;18(24):3391-3400.  
<https://doi.org/10.1111/j.1365-2702.2008.02521.x>
  26. Liu X, Kakade M, Fuller CJ, Fan B, Fang Y, Kong J, et al. Depression after exposure to stressful events: lessons learned from the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epidemic. *Comprehensive Psychiatry*. 2012;53(1):15-23.  
<https://doi.org/10.1016/j.comppsy.2011.02.003>
  27. Jung H, Choi A, Lee G, Kim J, Jeong S.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that were cohort quarantined during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outbreak.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 18(3):175-184.  
<https://doi.org/10.5762/KAIS.2017.18.3.175>

28. Su TP, Lien TC, Yang CY, Su YL, Wang JH, Tsai SL, et al. Prevalence of psychiatric morbidity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of the nurses in a structured SARS caring unit during outbreak: a prospective and periodic assessment study in Taiwan.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2007; 41(1-2):119-130.  
<https://doi.org/10.1016/j.jpsychires.2005.12.006>